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 마세요”

효성화학, 세계 최초 개발 ‘폴리케톤’ 수도계량기 적용 동파 대비 열전도 200분의 1~서울 이어 전국으로 확대

단독주택이나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겨울철만 되면 걱정이 앞선다. 수도계량기 동파 때문이다. 수도계량기가 터지면 며칠동안 수도물을 사용할 수 없다. 보일러는 돌지 않아 냉방에서 생활해야 하고, 세면도 못한다. 심지어 식자준비도 할 수 없다.

효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효성화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 ‘폴리케톤’이다. 폴리케톤은 기존 수도계량기에 사용된 황동보다 열전도도가 200분의 1가량 낮아 동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5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화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소재 ‘폴리케톤’의 수도계량기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효성화학은 삼성계기공업과 함께 폴리케톤 수도계량기 2만3000개를 지난 9월

서울시에 납품한 데 이어, 2022년까지 수도계량기 연간 수요(250만개)의 30%를 폴리케톤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폴리케톤은 기존의 황동 소재보다 열전도도가 약 200분의 1 정도로 낮아 황동 수도계량기보다 동파에 강하다. 실제 영하 20도의 동일 조건으로 황동과 폴리케톤 수도계량기를 비교실험한 결과, 황동 제품은 53분 뒤 동파된 반면 폴리케톤 제품은 130분을 버텼다.

최근 수도계량기 납 함유량 기준이 0.85% 이하로 낮춰졌고, 0.25% 이하까지 개정 움직임이 있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중금속 용출 염려가 없는 폴리케톤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고 효성 측은 전했다.

특히 폴리케톤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대기 중 유해 가스를 줄이면서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친환경·탄소저감형 소재라고 강조했다.

폴리케톤 1t을 생산하는데 드는 일산화탄소(CO)가 약 0.5t으로, 연간 5만t의 폴리케톤을 생산하면 소나무 380만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효성중공업이 짓는 아파트 브랜드 ‘해링턴 플레이스’에 폴리케톤 수도계량기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의 ‘해링턴 플레이스’ 1만2000여 가구에 폴리케톤 수도계량기가 적용됐는데, 현재까지 단 1건의 동파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하다. 지난 10월 효성화학과 삼성계기공업이 함께 인도 ‘물·하수·폐기물·재활용 전시회(IFAT INDIA 2019)’와 베트남 ‘물 산업 전시회

(VIET WATER 2019)’에 참가했다.

효성화학은 신동아전자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폴리케톤 수도계량기의 성능 인증을 취득했으며, 페루와 말레이시아에도 성능 인증을 힘쓰고 있다. 폴리케톤으로 수도계량기를 제작하는 ㈜위지트에너지 역시 이라크 비스마아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폴리케톤 수도계량기를 납품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2003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10여년간 500억원을 투자, 2013년 세계 최초로 고성능 신소재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은 2015년 1250억원을 들여 연산 5만 규모의 공장을 울산 용연2공장에 건립, 폴리케톤을 생산하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효성의 독자 기술로 탄소섬유를 국산화한 것과 더불어 폴리케톤 같은 신소재 개발에도 주력해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부영, 나주혁신도시 ‘이노시티 에시앙’ 분양

3.3㎡당 평균 860만원대 전 세대 에어컨·발코니 무상 확장

부영주택은 나주시 빗가람동 1번지 광주전남혁신도시 B1블럭에 건설하는 ‘이노시티 에시앙’의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델하우스는 나주시 빗가람로 696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0년 9월 예정이다.

이노시티 에시앙은 지하 1층, 지상 13~20층 23개동 규모, 전용면적 84㎡(A·B·C) 단일평형 총 14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공급 가격은 3.3㎡당 평균 860만원대 대로 책정됐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금융 부담을 줄였고, 4bay 혁신설계를 적용하고 전 세대에 시스템 에어컨과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는 일조권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설계했으며, 넓은 공간거리를 확

보해 프라이버시 강화했다.

조경도 특화했다. 석가산·생태연못 등 7가지 테마의 특화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텃밭정원, 어린이 물놀이대가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독서실, 취미교실 등이 들어선다.

세대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방문객 확인과 가스, 거실조명, 난방기 조절이 가능하고 원패스 카드를 이용해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콜, 주차위치 안내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유전저수지와 유전제공원, 중앙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 쾌적성도 갖췄다. 교육여건도 장점이다. 단지 가까이 공립 빗누리 유치원과 빗누리 초교가 위치해 있으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전공대도 공사 중이다 추가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국세청, ‘사랑의 밥퍼’ 무료 급식봉사

남구 광주직업소년원서 봉사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최근 남구 광주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에서 박석현 청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소속 직원들이 ‘사랑의 밥퍼’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밥퍼’ 행사는 광주국세청이 매년 ‘사랑의 식당’을 후원하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독거·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이다.

이날 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돼지고기, 흥어무침, 떡 등 특별식으로 500여 명

의 영세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배식 등 부족한 일손을 함께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박 청장은 “소의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꾸준히 배려하며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세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평소 수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광주국세청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 나눔과 섬김 세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박석현(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사랑의 밥퍼’ 행사에서 영세노인들에게 음식을 배식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전남 1인가구 고용률 순위 2년새 8단계 떨어졌다

통계청 ‘한국 사회동향 2019’ ...광주 61% 11위, 전남 60% 12위

전남 1인 가구 고용률 순위가 2년 새 8계단 떨어졌고, 광주도 매년 하위권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

1인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1인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다.

지역 1인가구도 지난해 기준 광주 18만 2000가구·전남 23만8000가구로, 각각 전체 가구의 31.3%, 32.2%를 차지했다. 1인가구 비율은 광주 29.9%(2016년)→30.6%(2017년)→31.3%(2018년), 전남 31.1%(2016년)→31.6%(2017년)→

32.2%(2018년)로 매년 오름세다.

1인가구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 상태·복지 등 여건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1인 가구 고용률은 2016년 55.6%(14위), 2017년 60.3%(10위), 2018년 60.7%(11위)로 평균을 밑돌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 1인 가구 고용률은 지난 2016년 61.9%로 전국 4위였지만 이듬해 59%로 12위로 추락한 뒤 2018년 60.3%(12위)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또복권 (제88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자	
3 13 29 38 39 42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08,986,950	10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58,582,971	60
3 5개 숫자일치	1,503,413	2,338
4 4개 숫자일치	50,000	114,198
5 3개 숫자일치	5,000	1,907,477

광주 광통신기업 ‘피피아’ 코스닥 상장

16~17일 청약 공모가 7000원

광주 첨단산단 내 광통신부품 제조업체 ㈜피피아(이강우 대표)가 코스닥 상장을 한다.

피피아는 상장 주선인 미래에셋대우(주)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 7000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공모가 희망 범위(6000~7000원)의 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997대 1을 기록했다.

피피아는 16~17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한 뒤 26일 코스닥에 상장

할 예정이다.

1999년 광주 첨단산단 내 설립된 피피아는 데이터센터용 통신 부품 등을 생산하는 광주 광산업 대표 선도기업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천기술인 평판광회로를 바탕으로 초고속통신망 광가입자망의 핵심부품인 광파워 분배기와 광장분배기를 국내 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411억여원, 영업이익 24억여원, 순이익 25억여원을 기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박인철 광주신세계 수석부장 관리이사 승진...재무·인사 총괄

‘광주 기업계 홍보통’으로 꼽히는 박인철(49·사진)은 광주신세계 수석부장이 관리이사로 승진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3일 박인철 영업기획팀 수석부장을 관리이사로 임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박 이사는 광주신세계 홍보과장과 고객전략팀장, 영업기획&개발TF 팀장 등을 지냈다. 올해부터는 광주일보 독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